

젊은 세대들이 먼저 찾아 오게 하는 교회에 대한 연구
: 전주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권복음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Bokeum Kwo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N THE CHURCH THAT ATTRACTS THE YOUNG GENERATION FIRST

: FOCUSING ON THE CASE OF JEONJU UNIVERSITY

Bokeum Kwon

Choongshin Church, Seoul

The Korean church has experienced a great revival and growth that cannot be found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hurch over the past 140 years. However, since the 2000s, the overall religious power has been decreasing little by little, and among them, the proportion of composition of the young generation has been decreasing rapidly. This is because the young generation, who were born and raised in the rapidly changing trend of the times, became frustrated as they looked at the unchangeable church and the older generation. It is possible for the Korean church to bring the lost young generation back to the church. There are numerous church efforts to become a "church you want to come to."

In this paper studied ways to become a church that attracts the young generation first. Through Leonard Sweet's EPIC model, we will confirm the needs of today's young generation and present the direction for the Korean church to move forward. If the church can apply the EPIC model wisely, it will see the young generation lining up in front of the church first.

In this study, the story of Jeonju University was presented as a pastoral case applying the EPIC model. I will introduce the results of meeting 6,000 students participating in Jeonju University's chapel every week for five years.

Finally, I saw the result of Jeonju University's chapel waiting in line to come in first, not a boring time when students didn't want to come in. More than 5,000 students responded to the survey on Chapel every semester, and through Chapel, they welcomed Jesus Christ as a savior, became religious, and recorded the confessions of baptized students.

I hope that this thesis will contribute as one of the ways to help churches and pastors who are struggling with love and interest for the young generation.

국문초록

젊은 세대들이 먼저 찾아 오게 하는 교회에 대한 연구

: 전주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권복음

충신교회, 서울

한국교회는 지난 140년 동안 세계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전체 교세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구성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교회와 기성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로 찾아오게 하는 일은 가능하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한 수많은 교회의 노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젊은 세대가 먼저 찾아 오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였다.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을 통해 오늘날 젊은 세대의 필요를 확인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교회가 EPIC 모델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다면, 젊은 세대가 먼저 교회 앞에 줄을 서서 입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EPIC 모델을 적용한 목회 사례로 전주대학교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전주대학교 채플에 참여하는 6,000명의 학생들을 5년 동안 매주 만났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결과들을 소개할 것이다.

마침내 전주대학교 채플이 학생들이 들어오기 싫어했던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먼저 들어오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된 결과를 보게 되었다. 매 학기 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채플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었고, 채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은 학생들의 고백도 기록하였다.

본 논문이 젊은 세대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감사의 글	ix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의의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II. 젊은 세대와 한국교회의 현황 이해	6
젊은 세대 정의 및 소개 (X세대, MZ세대)	6
한국교회의 세대 변화	11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14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21
III. EPIC 이론 설명	26
경험적 교회 (Experiential Church)	27
참여적 교회 (Participatory Church)	28
이미지 추구/상호작용적 교회 (Image-driven/Interactive Church)	30
연결적 공동체적 교회 (Connected/Communal Church)	31

IV. EPIC 목회 (방법론)	33
전주대학교 이야기	33
E - 다시 경험하게 하다	47
P - 참여하는 기쁨	59
I - 풍성한 이미지로 전달되는 복음	69
C - 친구가 되어 주기	72
V. 결론	79
요약 및 평가	79
제언과 결론	81
참고문헌	84
부록	86

감사의 글

한 가지 분야에서 결눈질하지 않고 오랫동안 외길만을 걸어오다가 그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며 동시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줄곧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평생을 쏟으며 걸어온 삶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여, 전도사 시절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의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으며,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박사논문을 완성했다는 사실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아닌, 온전히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신학과 목회의 현장에서 만나 뵈었던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귀한 스승이시며, 또한 은인들이셨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부터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모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전주대학교, 방주교회, 충신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부족한 저를 품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며, 삶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셨던 담임목사님들, 함께했던 동료 목사님들, 뜨거운 사랑과 응원과 기도로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전주대학교에서 함께 채플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동역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생 시절 씨뿌리기 사역을 통해 일찍부터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재미와 깊이를 뼈속까지 느끼게 지도해주신 조병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안목을 선물해 주시며 다가올 미래의 목회사역에 대한 청사진을 세워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며 한국교회를 세우고 돕기 위한 논문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로 지도해주신 김영래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목회길을 걸어오신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며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목회와 공부의 시간 동안 언제나 내 옆에서 돕는 배필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연인으로,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내 편으로 지지해주며 “할 수 있다” 고백해준 사랑하는 아내 강윤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물해주신 보물 같은 두 아들 아인, 이든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 5

권복음

제 I 장

서 론

연구의 목적

세상의 소망은 여전히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있음을 믿으며 목사 안수를 받아 풀타임 목회사역을 감당해온지 10년이 되었다. 전도사 직분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섬겨온 횃수를 모두 합하면 약 20년의 세월동안 여러 모양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며 한 영혼을 세우는 자리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다.

2002년 신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처음으로 참석했던 채플 예배시간 강사 목사님은 ‘이제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서서히 내리막 길을 가게 될 것’ 이라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의 상황은 점차 교세가 감소하며, 절반 이상의 교회에서는 교회학교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였다.

1960~1990년대까지 놀라운 양적부흥을 경험해왔던 한국교회의 성장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멈추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사라져간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2010년대부터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사라져 간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최근 2020년대의 한국교회는 허리역할을 감당해줘야 할 30~40대 세대들이 사라져가는 현상으로 인해

어두운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젊은 세대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며, 그러한 두 번 교회를 방문해보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젊은 세대들이 먼저 교회로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고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솔직한 성찰이 이루어져야만 젊은 세대의 교회이탈 현상에 대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고민하며 노력한 시간이 20년 이상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를 품고 붙잡기 위한 한국교회의 뚜렷한 방향성과 실천의 모습들은 그리 많이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안타까운 사실이다.

본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필자는 20년 가까이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목회의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다양한 경험과 시선을 바탕으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변화와 그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회 안의 세대구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느끼고 있을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에 대해서 정리하며 해결 방향을 찾아보려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를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과 방법으로써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을 설명하고, 이것을 실제 목회현장에 직접 적용해 보았던 사례들과 결과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젊은 세대 부흥을 위한 작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연구의 의의

앞서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끊임없이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해갈 것이다.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기성 세대들과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과 괴리감은 언제나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해왔던 주제이다.

1960년대 이후로 세계 교회사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과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는 분명 특별하다. 본 논문은 최근 20년 동안, 140년이라는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교인 감소 현상,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빠른 이탈현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논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인구감소 현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인지, 혹은 한국교회가 아쉽게도 놓쳐버린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놀라웠던 부흥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960년대 이후,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가운데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과 도전을 품을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 시절의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예전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때문에 본 논문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논문’ 이 될 것이다. 절망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들추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부흥과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가 될 것이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여전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을 품어주며 위로해 줄, 그리고 공감하며 함께해 줄 교회 공동체를 간절히 기다리며 찾고 있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를 개괄하자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젊은 세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연령대를 지칭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젊은 세대의 명칭들과 그 특징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확연하게 남달랐던 90년대 X세대, 그리고 2020년대 MZ세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한국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교회 안에서의

세대 변화는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특별히 중위연령의 변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이유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희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교회로 먼저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의 방법으로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을 살펴보려 한다. 문자세대에서 영상세대로, 그리고 다시 4차산업혁명 이후의 세대로 변화되어 가는 현실 가운데 본질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회가 장착해야 할 방향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EPIC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젊은 세대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목회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했던 목회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젊은 세대들을 매주 4,000명씩 주기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전주대학교에서의 다양한 사례들과 결과들을 분석하고 연구해보면서 한국교회가 함께 붙잡아야 할 본질들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5장에서는 2~4장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며, 논문에 대해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보았다. 또한 젊은 세대에 대해 관심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알파벳 “C” 로 시작하는 10가지 핵심가치에 대하여 새로운 제언을 던진다.

마지막 부분에는 본문에 모두 담지 못한 다양한 자료들과 젊은 세대들의 피드백 내용들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제 II 장

젊은 세대와 한국교회의 현황 이해

젊은 세대 정의 및 소개 (X세대, MZ세대)

인류는 세대를 통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며 끊이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다. 세대(世代, Generation)는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다시 자녀를 낳는 때까지 걸리는 약 30년 정도의 주기를 뜻하는 '세(世)'와 이전에 태어난 사람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서로 교대한다는 뜻의 '대(代)'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한 개인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2세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뜻한다. 오늘날 생물학적으로 정의하는 한 세대란, 보통 25~30년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는 ‘세대’의 정의가 있다. 태어난 시기가 비슷한 이들의 집단을 부를 때에도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¹

유년, 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등과 같은 단어들이 바로 비슷한 연령대의 집단을 부르는 명칭들이다. 세대에 대한 명칭은 평균 연령, 혹은 주변

¹ <https://namu.wiki/w/%EC%84%B8%EB%8C%80> [2023년 3월 7일 최종접속]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20~30대 인구가 전혀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는 50대의 사람도, 혹은 60대의 사람도 청년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 라는 단어에 대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 상황과 한국교회의 환경에 기준하여, 20대에서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연령에 대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젊은 세대들은 존재하였었지만, 최근 30년 동안 한국사회 안에서 특별하게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특정 단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1990년의 X세대이며, 최근 2020년의 MZ세대이다.

우선 ‘X세대’ 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한다. X세대는 일반적으로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성장의 원인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다. X세대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고도 경제 성장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다.²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를 경험했다. 이들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형성하는 주요 인물들이었으며, 모바일 기술과 소셜 미디어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한 세대이다.

²[https://namu.wiki/w/X%EC%84%B8%EB%8C%80\(%EB%8C%80%ED%95%9C%EB%AF%BC%EA%B5%AD\)](https://namu.wiki/w/X%EC%84%B8%EB%8C%80(%EB%8C%80%ED%95%9C%EB%AF%BC%EA%B5%AD)) [2023년 3월 7일 최종접속]

X세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던 한국사회 안에서 갑작스러운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된 세대이다. 6.25 전쟁이후로 매우 풍요로워진 사회였지만, 또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했던 세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변화와 수용을 경험하며 다양성과 개인주의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많아진 세대이다. 종합적으로 X세대는 다양성과 개인주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잠깐의 위기, 인터넷의 보급과 기술을 발달을 어린시절부터 경험한 세대이다.

과거 X세대라고 불리던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세대가 되었으며, 한국교회 안에서는 60~70대 목회자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시대의 젊은 담임목회자들로 세대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담임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한국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급진적이며 큰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2020년대에 들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MZ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우선 MZ세대는 학술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안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변화의 중심이었던 X세대 이후로 다양한 이름의 세대론이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MZ세대만큼 전국민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은 없었다. 그만큼 MZ세대라는 단어 안에는, 새로운 시대와 흐름에 따른 변화가 일어났으며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문화에 대하여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중요한 현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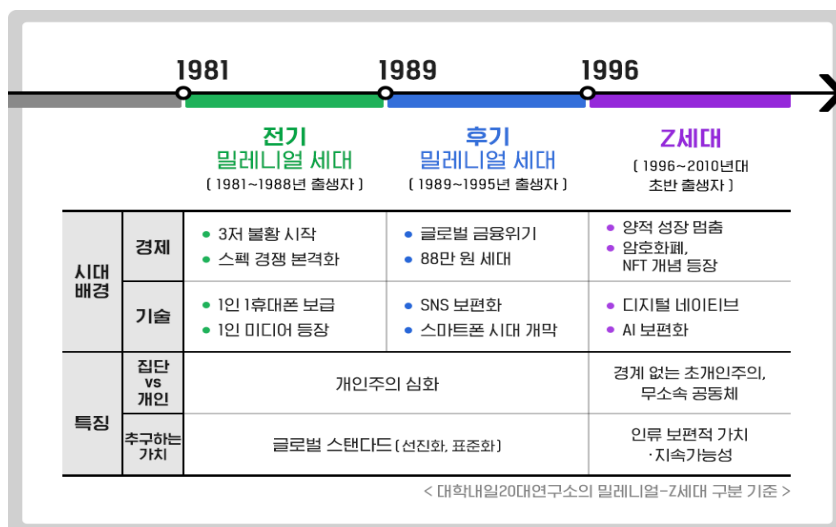
MZ세대란, 보통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대한민국 인구층을 일컫는 용어이다.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단어는 학술적인 배경에서 기인한 용어가 아니라, 젊은 층의 트렌드를 파악하겠다는 목적의 상업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용어이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COVID-19) 팬데믹 이후로 급격하게 변화된 한국사회 안에서 대유행을 맞이하게 되며 사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10대 청소년에서부터 40대 초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큰 범위의 세대를 마케팅적 편의를 위해 ‘젊은 세대’ 라는 관점 하나로 범주화 한 것이다.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와 Z세대 라는 단어의 사용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더해서 MZ세대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MZ세대에 대한 정의가 사회안에서 저마다 모두 다르고, 논쟁적으로 변하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대학내일’ 이라는 단체에서 2022년 1월에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밀레니얼-Z세대 구분 기준>이라는 문서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왜 M과 Z를 묶었는지 설명했다.³

비록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젊은 세대를 대표하며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로써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기에,

³ <https://namu.wiki/w/MZ%EC%84%B8%EB%8C%80> [2023년 3월 7일 최종접속]

MZ세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 한다. MZ세대는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라고도 불리는 세대이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전 세대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세대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MZ세대는 다양한 문화와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창의적이며 융통성이 뛰어난 경향을 보인다. 앞서 다루었던 X세대가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혁신적인 환경에서 자라났듯이, MZ세대 또한 스마트폰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보급이라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이전의 세대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경험하면서 자라난 세대이다.

<그림1> MZ세대의 특징 설명과 구분 기준⁴



⁴ <https://www.20slab.org/Archives/38116>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밀레니얼-Z세대 구분기준> [2023년 3월 7일 최종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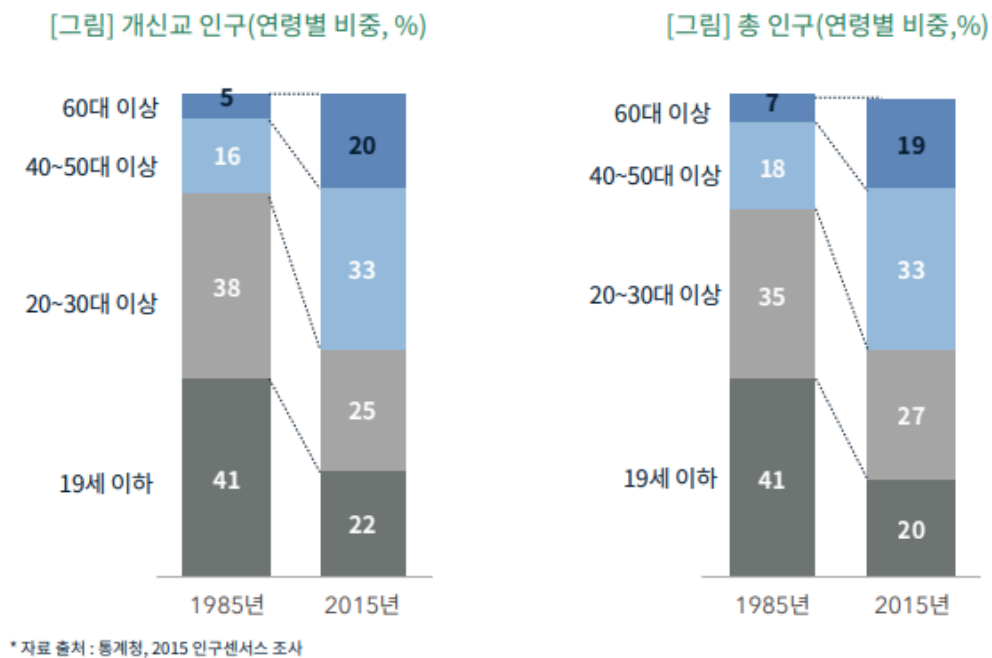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앞서 살펴보았던 ‘X세대’와 ‘MZ세대’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모든 특징들을 다시 나열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급격한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에 따른 문화적 변화, 경제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NS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시대보다 크고 강력해진 생활의 변화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이 주장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기성 세대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추구하던 가치들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던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다.

한국교회의 세대 변화

그동안 한국교회 교인들의 세대별 비중과 구성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1985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1985년 한국교회 교인들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 교인의 79%가 39세 이하인 것을 볼 수 있다. 60세 이상의 교인들의 비중은 5%에 그쳤다. 교회 안의 ‘젊은 세대’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5년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한국교회 안의 39세 이하 교인들의 비중이 47%로 확연히 줄어든 동시에, 60세 이상 교인들의 비중은 20%로 1985년에 비해 4배나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개신교 인구와 총인구 (연령별 비중 %)⁵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그저 교회만의 상황이 아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회적 현상이다. 총 인구에서도 역시 39세 이하의 젊은 세대 비중이 줄어들고,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의 고령화가 총 인구의 고령화보다 조금 더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⁵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4 *자료출처 : 통계청, 2015 인구센서스 조사 [2023년 3월 7일 최종접속]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10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 총 인구의 증감률과 한국교회 교인들 증감률은 비슷한 수치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특별히 5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한국교회 교인의 고령화가 사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3> 2005년 대비 2015년 인구 증감률⁶

[표] 2005년 대비 2015년 인구 증감률 (%)

	종교별과 총인구 인구 증감률				
	개신교	불교	가톨릭	종교 인구 전체	총 인구
9세 이하	-17	-63	-53	-40	-19
10대	-7	-59	-49	-36	-14
20대	-10	-56	-39	-35	-12
30대	-6	-47	-30	-28	-10
40대	17	-38	-31	-19	6
50대	68	8	14	26	56
60대 이상	80	16	33	36	49

* 자료 출처 : 통계청, 인구 센서스 조사

고령화 현상과 함께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중위 연령’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중위 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에 그 중간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연령을 말하는 것이다.⁷ 쉽게 말해서 사회구성원들

⁶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4 *자료출처 : 통계청, 2015 인구센서스 조사 [2023년 3월 7일 최종접속]

⁷ https://kostat.go.kr/statTerm.es?act=view&mid=a10503000000&nPage=1&stat_term_cd=SL4241 *자료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래인구추계) [2023년 3월 7일 최종접속]

가운데에서 중간에 위치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나이가 중위 연령을 넘겨야 비로소 그 사회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어른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의 문화이다.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의 중위 연령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는 23.6세, 1990년에는 29.5세, 2000년에는 33.1세, 2010년에는 38세, 2020년에는 42.7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⁸ 다시 말하자면 1990년에는 30세만 되어도 어른으로 인정받던 사회 분위기였다면, 2020년에는 나이가 40세가 넘었어도 어른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자료처럼 한국교회의 고령화 속도가 일반 사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교회의 중위 연령은 일반 사회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앞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젊은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X세대도 그렇고, MZ세대도 그렇고,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급격한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사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⁸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18448 *자료출처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2023년 3월 7일 최종접속]

젊은 세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며 그것들이 일상 생활이나 신앙 생활, 그리고 교회 문화에도 신속하게 적용하길 원한다. 반면에 고령화된 기성 세대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도전하며 배우기 보다는 본인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신앙적 습관과 교회의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가 급격한 속도로 줄어가고 있는 이유에는 물론 인구감소의 요인도 있고, 세대 간의 문화차이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핵심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매력적’이라는 말은,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공동체의 특징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아주 많이 상실해버렸다. 한국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교인으로서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 속에서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해주기는 커녕, 부끄럽고 부족한 교회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암담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자라고, 겪으며, 살아온 것이다.

대형교회의 불법건축, 대형교회의 편법세습, 인지도 높은 교회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과 비상식적인 재정관리와 집행, 헌금횡령, 기독교(목회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 등, 한국교회의 부조리한 모습들과 세속적인 모습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오랜 세월 비춰지면서 그들은 더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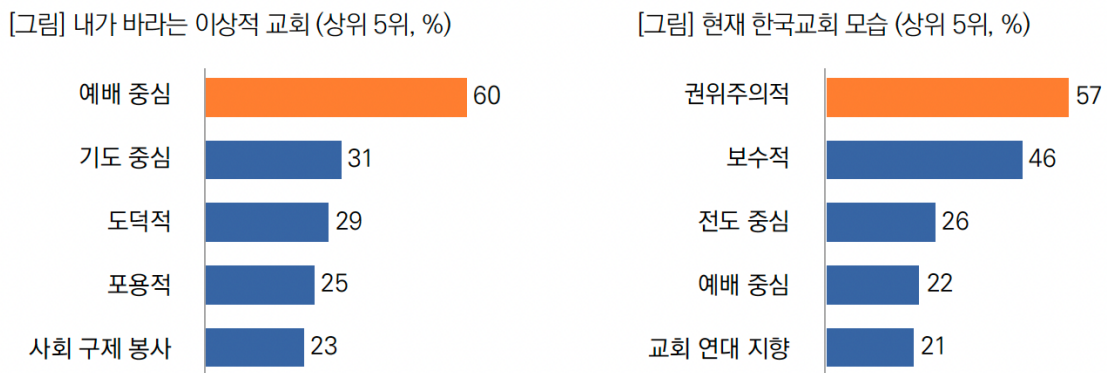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사랑의 깊이를 세상에 선포해야 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한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을 잃어가게 된 것이다. 그저 비기독교인 젊은 세대들에게만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독교인 젊은이들에게도 더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1%만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종교인의 신뢰도는 10.6%에 그쳤다.⁹ 전 국민의 80%가 교회를 불신한다는 말이다. 이 결과는 불과 3년만에 10%나 더 하락한 수치였다. 이 속도로 가면 한국교회는 한국사회 안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곳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⁹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998> [2023년 3월 9일 최종접속]

사회전체가 느끼는 교회에 대한 모습도 문제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의 인식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8월, ‘지앤컴리서치’ 라는 기관에서 개신교인의 교회 인식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1,000명의 교인들에게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만 19세 이상 성인 800명과 만 19~34세 200명을 각각 조사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현재 젊은 세대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자료이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권위주의적’ 이라는 것이고, 그 뒤로는 ‘보수적’ 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그림4> 개신교인의 교회 인식 조사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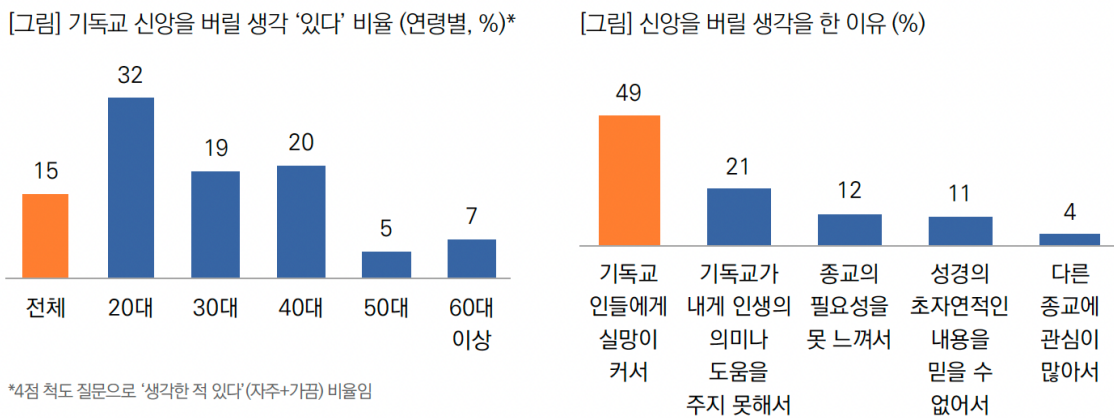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들과 권위주의 적이며

¹⁰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69 *자료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166호) - 개신교인의 교회 인식 조사 [2023년 3월 9일 최종접속]

보수적인 모습들 앞에서 많은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물결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오늘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며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며, 게다가 지나치게 권위주의 적이며, 보수적인 한국교회의 모습 앞에서 20대, 30대, 40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5> 기독교신앙을 버릴 생각 및 그 이유¹¹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을 잃어버린 이유들 가운데 또한 중요한 요인인 바로 수직적이며 권위적인 구조에서 비롯한 소통의 어려움이다. 사실상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당회를 구성하는 주요 연령층이 대부분 60대이며, 그들

¹¹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69 *자료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166호) - 개신교인의 교회 인식 조사 [2023년 3월 9일 최종접속]

가운데에서도 가장 연령이 높은 60대 중후반의 의경들이 교회조직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젊은 세대들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 보다는 자연스럽게 60대의 리더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방향들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리더들이 결정하고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과 방향들이 20~30세의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젊은 세대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품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직이 되어온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을 품고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교회 내 리더십들의 고령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가청주파수’ 라는 것이 있다. 가청주파수(可聽周波數, audible frequency)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범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청각 범위는 20Hz에서 20,000Hz까지이며, 이 범위 내에서 소리를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다.¹² 가청주파수는 음악이나 대화 등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나 저음파도 존재한다. 초음파는 20,000Hz를 초과하며, 저음파는 20Hz 미만이다.

가청주파수의 영역대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10대 이하의

¹² 주파수는 파동의 주기를 나타내며, 단위는 헤르츠(Hz)로 측정된다. 즉, 20Hz는 1초당 20번의 파동을 나타내며, 20,000Hz는 1초당 20,000번의 파동을 나타낸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주파수 대역이 매우 높은 20,000Hz 근처의 소리들까지 들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들을 수 있는 영역대가 낮아지게 된다. 보통의 경우 10대 후반에는 17,700Hz까지 들을 수 있게 되고, 20대 중반에는 15,800Hz까지 들을 수 있게 되고, 30대에는 14,100Hz, 40대에는 12,000Hz, 그리고 50대와 60대 이후에는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더 줄어들게 된다. 보통 8,000Hz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

가청주파수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젊은 세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기성 세대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초 고주파로 연주되는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을지라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40대 교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가청주파수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은 창조의 섭리일 뿐이다. 다만 이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이며, 점점 들리지 않는 영역이 생겨날 때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한국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는 기성 세대들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줄 마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하는 교회,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지 못하는

교회, 참으로 아프고 괴롭겠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앞에서는 한국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그렇다고 한국교회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있음을 믿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올 수 있을 만한 아주 매력적인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가득하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 젊은 세대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세례를 받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는 신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흥을 경험함과 동시에 교회 내적으로는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충만한 보습을 볼 수 있다. 그것 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¹³

¹³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7)

성경에 기록된 ‘온 백성’ 이라는 단어는 그저 그리스도인(교인)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칭송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한국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단순할지도 모른다. 호화롭게 멋진 예배당을 가진 건물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되게 흘려 보내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a.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

한국교회는 종교적인 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나라의 해방을 위한 3.1 운동을 앞장서서 진행했으며, 6.25 전쟁 이후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데에도 교회가 큰 역할들을 감당해왔다. 국가적 어려움, 천재지변, 재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구호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것이 바로

한국교회였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선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기관과 집단은 다름아닌 한국교회(혹은 교회관련)라는 사실에 이견을 달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 가운데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b. 강력한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연결성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인들 간에도 매우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연결성은 서로 돕고 지지해 주는 문화를 형성하여 교인들에게 큰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는 경제적/문화적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물론 예배로 인한 소음이나 주차문제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겪는 교회의 경우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데에,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교회가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 이민자들의 경우, 교회가 가장 강력한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위로와 안정을 선물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최근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젊은 세대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할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로서

한국교회는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c. 성경적 가르침과 교리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리를 중요시한다. 성경에 입각한 건강한 가르침과 교회의 메시지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인생의 가치와 의미, 도덕적인 책임감 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삶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며, 이러한 지식과 지혜는 세상에서 듣거나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로써 젊은 세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자극이 된다. 개인의 행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희생과 헌신, 나눔과 베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그 어떤 집단도 흉내 낼 수 없는, 오직 교회만이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감동이다.

d.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한국교회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갓난 아이에서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부부, 장년층, 여성,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 대해서도 교회는 지원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통해 꿈을 얻고, 배움을 얻고, 삶의 모델을 찾으며, 위로와 안식을 얻고, 자신들의 재능을 또한 나누고 흘려 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이 되어줄 수 있다.

e.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강조

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선물해주기도 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도구로 바라보게 되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고, 사람보다 기술이 중요하며, 사람보다 성공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구원한 존재가 바로 우리 각 사람들임을 선포한다. 세상에서는 연봉으로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능력과 스펙으로 존재가치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교회는 연약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모든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복음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복음’ 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다.

제 III 장

EPIC 이론 설명

젊은 세대가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을 활용하려고 한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 박사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인 동시에 교회 미래 학자이며, 현재 드루 신학대학원 (Drew Theological School)의 석좌 교수이다. 그가 설립한 스피릿벤처미니스트리 (SpiritVenture Ministries)라는 단체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하는 목회를 시도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를 위해 신학 이론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돕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집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에는 대한민국에서도 미래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미래목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자이다.¹⁴

레너드 스윗은 1999년, “Soul Tsunami” 에서 EPIC 모델에 대하여 경험적(Experiential), 참여적(Participatory), 상호작용적(Interactive),

¹⁴ 임정수,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교육 -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을 중심으로”, 90.

공동체적(Communal)으로 설명했다. 그 후 2000년에 출판된 Postmodern Pilgrims에서는 ‘I’ 를 이미지 추구적(Image-driven)으로 ‘C’ 를 연결적(Connected)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며 서로 관계된 것이며, 네 가지 모델은 상호 관련성을 가진 개념들이다.¹⁵

그 이후 2007년 출간된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를 통해 EPIC Life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에픽(EPIC)이란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s), 관계(Connection)라는 네 가지 요소인데, 전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스타벅스’ 를 통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점들에 대하여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경험적 교회 (Experiential Church)

스타벅스는 대단하고 엄청난 커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문을 연 것이 아니었다. 스타벅스는 새로운 커피 체험을 제공했다. 사람들은 그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커피를 경험하는 데 돈을 지불한다.¹⁶

필자 역시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한다. 집과 교회 사이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하루에 최소 1번 이상, 매일 방문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¹⁵ 김도일, 『미래시대.미래세대.미래교육』 (서울: 기독교, 2013), 6. 재인용.

¹⁶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50.

된다. 스타벅스는 그저 커피를 파는 매장의 개념을 뛰어 넘어 사람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다. 스타벅스에서 만남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구매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멋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묘한 매력이 있다.

아침 7시에 문을 여는 스타벅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매장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그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스타벅스는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의 가치를 뛰어 넘는 경험을 선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을 선물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억지스럽거나 강압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느껴지는 뜨거운 경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공간이 될 때, 교회 앞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선 풍경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참여적 교회 (Participatory Church)

사람들을 끌어 당기며 모이게 하는 진정한 체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체험에 직접 참여하도록 이끌어 간다.¹⁷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가지 취향에 따라 주문을 하게 된다. 사이즈를 결정하고, 에스프레소 샷의 횟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시럽을 첨가할 것인지도 고민하여 결정한다. 이런 결정들과 참여들을 통해 한 잔의 커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는 고객들로 하여금 더 긍정적인 체험을 이끌어 낸다.¹⁸ 스타벅스에 방문하여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참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존재의 핵심은 신적 존재의 정수에 참여하는 것이다”¹⁹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이다.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 신앙의 맛을 더 깊이 경험하며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억지로 시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태도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¹⁷ Ibid., 89.

¹⁸ Ibid., 87.

¹⁹ Ibid., 113.

이미지 추구 / 상호작용적 교회 (Image-driven/Interactive Church)

오늘날의 시대는 그 어느때보다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이다. 문자와 음성의 시대는 이미 오랜 과거가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상과 미디어의 시대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

이미지는 수많은 언어를 대체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세계적인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가 착용하고 있는 신발이나 운동복에 새겨진 나이키 로고가 TV화면에 비춰질 때, 더이상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다. 추가적인 광고와 멘트도 필요하지 않다. 그 한 장의 이미지만으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나이키라는 회사의 업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브랜드 이미지다. 젊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회사에서 업무를 보거나, 카페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다.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말씀 뿐 아니라 이미지의 활용이 자리 잡고 있다. 교회는 신앙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²⁰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성품을 풍성하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성령님의 임재와 위로하심을 더 가까이 경험하며 사람들의 삶에 실재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미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²⁰ Ibid., 149.

필요하다.

연결적 공동체적 교회 (Connected/Commual Church)

에픽(EPIC)을 통한 교회와 목회는 경험적이고, 참여적이며, 이미지가 풍부하고, 마지막으로 관계적이다.²¹ 스타벅스에 혼자 앉아서 커피를 즐기며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미 그 매장 안에 존재하게 되는 순간부터 혼자 있는 사람일지라도 또 다른 혼자인 사람들과 공통점 및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린다. 나 말고도 혼자서 이 공간에 와서 나처럼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는 등의 시간을 보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다. 에픽은 관계적이다. 에픽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준다.²²

에픽 인생(EPIC Life)에서 관계는 그에 앞서서 모든 것에 느낌표를 찍는다. 경험과 참여, 풍부한 이미지. 이 모든 것은 에픽 인생의 네 번째 차원, 즉 관계로 이끄는 서문 역할을 한다.²³ 본 논문의 목적은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사람들이 어딘가로 스스로 찾아온다는 것은,

²¹ Ibid., 167.

²² Ibid., 167.

²³ Ibid., 171.

그들이 갈급 하게 느끼고 있는 필요를 이곳에서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길 때이다.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찾아 헤매는 것은 결국 소속감(connectedness)이다.²⁴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집단은 바로 교회이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천국(하나님나라)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해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이 수용되며, 진정성 있는 관계들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은 교회로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²⁴ Ibid., 172.

제 IV 장

EPIC 목회 방법론 (전주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A. 전주대학교 이야기

1. 전주대학교 학생 채플 소개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1964년에 설립되어, 진리·평화·자유의 교시와 영성·인성·지성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통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창의적 실용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⁵

필자는 전주대학교에서 2011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9학기 동안 객원교수라는 신분으로서 ‘학생 채플’을 담당하는 역할로 근무하였다. 채플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였으며, 스태프들과 함께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또한 주중에는 선교학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의 기도모임을 진행했고, 주일에는 전주대학교 대학교회의 목회자로 섬기는 등의 활동으로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²⁵ <https://www.jj.ac.kr/jj/introduction/greetings.jsp>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2023년 3월 10일 최종접속]

목회사역과 캠퍼스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당시 전주대학교의 재학중인 학생 인원은 12,000여명이었으며, 1학년과 2학년 때 총 4학기 동안 채플에 의무로 참여해야 하는 교칙이 있었다. 따라서 매 학기마다 전체 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6,000여명의 학생들이 채플에 참석하였다. 이 6,000여명의 학생들을 다시 기독교인 학생들과 비기독교인 학생들로 구분하여 두 개의 특성화 채플을 운영하였다. 2,000여명의 기독교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채플은 기존의 찬양과 말씀이라는 예배형식으로 진행하였고, 4,000여명의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채플은 콘서트와 강연의 형식으로 새롭게 디자인 해서 필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기독교대학들이 세워져 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저 양반들 만을 위한 것이었다. 평민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글을 읽을 수가 없는 문맹 국가였다. 그랬던 이 나라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 결과 전 국민이 문맹에 가까웠던 우리나라가 곳곳에 이제는 수많은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세계적인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들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한 대학교들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조금씩 잃어 가기 시작하면서 사회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젊은 세대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호감을 느끼기 힘든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종교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대학에서 진행되는 채플 역시, 타종교를 가진 학생들이나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보통 기독교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채플이라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종교가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수업이다. 이렇게 강압적인 상황으로 채플에 들어오게 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나 강사들이 종교를 강요한다고 느끼게 된다.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설교를 매주 들어야만 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시간에 졸업을 위해 어쩔 수없이 강제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채플에 들어오는 수많은 학생들의 마음이 이미 교회를 향한 불만과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비단 이런 문제는 타 종교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조차 채플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미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감동 없는 예배와 젊은 세대들과 전혀 소통되지 않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기독교인 학생들에게 마저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채플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 진행되는 채플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독교대학에서 채플을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채플

관계자들조차 채플에 대해 특별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학생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니, 채플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든 기운이 빠지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민하며 연구했던 마음이 바로 ‘어떻게 하면 젊은 학생들이 먼저 찾아오고 싶은 채플이 될 수 있을까’ 였다. 들어오고 싶지 않은 공간이 아니라, 제일 먼저 뛰어 들어오고 싶은 공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전주대학교 채플을 담당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 젊은 세대들이 먼저 찾아오게 만드는 교회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에 기반하여 다양한 방법들로 채플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학생들의 먼저 뛰어 들어오는 채플로 변화되었다.

<그림6> 맨 앞줄에 와서 앉아 있는 비기독교인 학생들



2. 전주대학교 채플의 새로운 변화

사실 채플(Chapel) 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 학생들에게 딱딱하고 지루하며, 재미없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다.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채플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보았다고 대답하는 학생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이미 비호감으로 낙인 찍혀버린 채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다. 먼저, 그동안의 대학 채플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열심히 고민했고, 꼼꼼히 준비하며 진행했다. 그러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대학 채플이 학생들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을 실행하였다.

기존의 대학 채플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역할은, 바로 <예배>의 역할이었다. 채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저 관망자로 앉아 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채플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학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참여적 예배>의 시간으로 만들었다.

기독교 신앙이 있는 학생들이 한데 모여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춤을 추며, 뽀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학교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신학교가 아닌, 일반대학 채플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예배의 현상이 펼쳐진 것이다. 그렇게 찬양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앉는 학생들도 함께 앉아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안아 주기도 하며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가끔은 외부에서 초청되어 온 특별 게스트 분들의 시간도 가졌다.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크리스천 강사들의 짧은 공연 혹은 나눔을 통해서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부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접할 수 있었다. 단순한 게스트 공연의 형식이 아니라, 게스트와 진행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독교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선 진행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린 이후에, 필자는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적인 교회 설교의 형태가 아닌, 강연 혹은 강의의 형식으로 매주 학생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설교라는 딱딱한 개념과 느낌이 아니라, 채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마치 토크쇼나 강의쇼를 보는 것처럼 즐겁게 웃기도 하며 강사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체성, 비전, 리더십, 성품’ 등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실제로 고민할 수 있는 큰 주제들을 가지고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돌아보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단순한 강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들을 내포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매주 강의의 내용과 연결되는 성경의 말씀들을

소개하고 나누면서 거부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더 많은 학생들이 <시각적 이미지>로 보고 들을 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직접 무대 위로 올라와서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채플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점, 혹은 나누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 진행하고 싶은 이벤트 등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고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채플이 진행되던 시간들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집중하며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로써 채플이라는 시간이, 그저 비기독교인들이 꺼려하는 종교적인 예배시간이라는 한계와 틀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리며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적 시간>으로 변화 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닫힌 마음을 열리고 그 가운데 기독교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전주대학교 채플의 4가지 방향성

필자는 전주대학교 채플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성을 목표로 하였다.

a.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시간

전주대학교 채플을 기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다. 매 학기 약 70%에 가까운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채플에 참여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부정적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비기독교인 학생들은 그동안 "교회", "기독교"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몸서리를 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매주 채플에 참석하게 되면서 서서히 굳게 닫혀 있던 마음들이 열리게 되었다.

작은 선물, 작은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 스텝들의 모습, 비기독교인 학생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결과, 매 학기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학생들도 있었다.

190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흔히 잠재적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다. 아직 교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1960대 이후로 한국 교회는 엄청난 수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시대 속에 있는 것이다. 회사에서도 호감형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마스크에 오르내리는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모습들도 좋은 이야기를 접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자라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그동안의 좋지 않은 이미지와 오해를 벗게 해주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더불어 대학 채플이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대학에서 진행되는 채플이, 경건의 모양만 남겨진 채로 본래의 기능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마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대학마다 채플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채플은 반드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행정학과 전이슬 학생 (비기독교인)

저는 무교 집안에서 자라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필수라는 말에 그냥 들어와서 채플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 주 한 주 거듭할수록 흥미가 생기고, 이제는 매주 채플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지난 번 식목일에 채플시간에 화분을 선물로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자율좌석제라서 옆에서 자는 친구를 깨워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수고해주시는 모든 스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과학부 하현정 학생 (비기독교인)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채플이란 것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싫어서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서

졌습니다. 그러다가 채플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게 화이트 데이 선물로 추과츄스 사탕을 주실 때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 주 채플 시간에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더 가까운 자리로 옮겨와서 앉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채플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수고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스태프들이 진심으로 노력해 주셔서, 제가 신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듣게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듣기 싫은 마음이 있더라도 잠을 자지 마시고, 눈을 뜨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다 보시면 진심이 느껴 지실 것 같습니다.

b. 교회로부터 상처 받았던 이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열리는 시간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청년들보다 마음이 더 많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통해 상처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녔던 경험은 있지만, 오히려 교회를 통해 좋지 못한 기억들이 상처가 되어서 여전히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이 박혀버린 경우들이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하거나, 혹은 아무리 좋은 말씀과 노력들이 있더라도 좀처럼 쉽게 닫힌 마음을 다시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학생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버린 것에 대한 깊은 사과도 필요하다. 또한 상처받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수정해 주어야 한다.

<공감의 기술>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함께 지적하며 옥해줄 수 있어야 한다. 상처로 인해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fact)이 아니다. 형식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symathy)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감정과 아픔을 함께 공감(empathy)해주는 것이다.

함께 그들의 입장에 서서,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며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같이 손가락질 해주며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실망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줄 때에,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할 때에 청년들의 마음이 녹아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학생들은 이 마음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이다.

▶ **문헌정보학과 김태일 학생 (비기독교인)**

저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채플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채플에서 배웠던 리더십과 비전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다시 부흥채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채플시간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하는 마음에 다리를 꼬고 누워서 자려고 하다가도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경청하며 집중하다가 마지막엔 항상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교회를 다녔었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주대학교 채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에 다시 나가야겠다는 마음은 들었지만, 막상 결심을 하고 발걸음을 떼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결심만 앞서고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았습니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학교육과 서하나 학생 (기독교인)**

대학교에 올라와서 만나게 된 친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학과 30명의 친구들 중에 8명이 함께 이 채플을 듣고 있는데, 함께 앉아서 기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자율좌석제로 인해서 함께 앉아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비신자 친구들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 아무데나 앉자고 제안했는데, 오히려 비신자 친구들이 앞자리에 가서 앉자고 말해주어서 함께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 기독교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

채플은 수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결국 예배이다. 때로는 타 종교 학생들을 향한 선교적 목적을 가진 공연이나 강연 시간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채플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대학 채플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신학대학교가 아닌 이상, 타 종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70% 가까이 되는 타 종교 학생들 속에 파묻힌 나머지 기독교 신자 학생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채플이라는 무거운 상황과 분위기에 위축되어,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이 하나 있다. 채플에 들어오는 학생들 가운데, 예배자의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초청(calling)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학교를 위해, 타 종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어 격려하는 것이다. 전주대학교 채플에서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배자의 사명을 가진 학생들이 채플 시간마다 앞자리에 모여 앉는다. 그리고 짧은 찬양의 시간이지만,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교를 향해 기도한다. 학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 사회복지학과 정소미 (기독교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흥채플에서 찬양팀 싱어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채플시간에 앞에 서서 찬양할 때 아무도 함께 하지 않고, 비신자 학생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왠지 어색하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뛰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한 4주 정도 남아 있는 채플시간에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열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 채플 찬양팀이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주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d.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전주대학교 채플이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4년간의 대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학과, 다른 전공, 다른 학년인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채플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유일하다. 흔치 않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았다.

채플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시도 중 하나는 바로 <3분 스피치>라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은 강사의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때, 채플에 참석한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하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눈물을 흘리는 학생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생일을 맞은 학생에게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나, 광고, 혹은 사랑고백 까지도.. <함께> 이기에 행복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자연스럽게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마음 문을 더 활짝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많은 학생들은 채플이라는 공동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 **디자인학부 이상훈 (비기독교인)**

저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는 아니지만 지난번 채플시간에 들었던 ‘나눔의 행복’이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근처 교회에서 기아대책본부와 함께 진행하는 일일찾집에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태국에 있는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채플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행정학과 변우민 (비기독교인)**

오늘 4월 17일이 제 생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과 할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낱아 주시고 길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450명의 채플 참석자들이 이 학생을 위해서 함께 박수 치며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변우민 학생은 평생에 이렇게 감동적이고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 **영어영문학과 김지영 (기독교인)**

저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은 친구들과 과의 문제입니다. 제가 사교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채플시간에 참석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어서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내성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과MT를 다녀와야 하는데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학교생활도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채플시간에도 잘 듣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해서 크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날 채플의 모인 450명의 학생들이 ‘김지영’이라는 이름을 세 번 크게 외치면서 이 학생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B. E - 다시 경험하게 하다

1. 사랑받고 존중 받는 경험

처음 전주대학교 와서 채플을 맡아 시작했을 때에 떨리는 마음으로 학생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채플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학생들의 표정이 매우 어색하게 굳어 있고, 강사가 나누는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알고 보니, 학생들이 앉아 있는 좌석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학기 초에 수강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좌석 번호가 배정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정해진 번호에 맞는 좌석에만 앉아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다른 곳에 앉으면 결석처리가 되기도 하니,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야 했다. 이렇게 지정된 좌석에만 앉아야 하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채플강당 앞에까지 왔어도 자리에 앉을 때에는 서로 뿔뿔이 흩어져 앉아야만 하는 모습이었다. 결석처리 때문에 마음대로 자리를 변경할 수도 없었다.

과연 이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지,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했다. 채플에 들어온 학생들은 주변에 온통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게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그저 몇 가지 뿐이다. 1)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청하거나, 2)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3) 귀에 이어폰을 끼고 과제물 하는 것이다. “채플에 들어왔으면 앞에 서있는 강사에게 집중을 해야지! 그것이 기본 예의 아니겠어? 요즘 애들은 기본예절이라는 것이 전혀 없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마음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태도이다.

다른 대학 채플 관계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과제물을 하는 행동들을 강제로 금지 시키는 곳도 있다. 경고를 주거나 심지어 퇴장을 시키는 등의 조치까지 취한다. 이런 방법들은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학생들을 집중시킬 수가 없다. 물론 잠깐의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학생들의 마음을 더욱 단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강제적인 권력의 사용은 비기독교인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더 증폭시킬 뿐이다. 만약 이 학생들이 대학시절에 채플을 통해서 받은 상처와 불쾌하고 상한 감정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 버린다면, 아마도 두 번 다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와 이해'이다. 자신들이 진심으로 존중 받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젊은 세대들의 입장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고려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채플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들 가운데 '지정 좌석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지정 좌석제도를 사용하는 이점은 출결 관리가 편리하다는 것이다. 행정적인 수고를 덜어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주대학교에도 아주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지정 좌석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더 단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학교 직원들과 함께 1년간 고민하며 논의한 끝에, 채플시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앉고 싶은 좌석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었다.

그러자 즉시 학생들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친한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앉는 것이었다. 물론 채플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는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 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앉는 것이 약이 되는 경우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강사와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좋아진다. 모르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지정 좌석에 앉아있던 어색한 상황 속에서는 기존 기독교인 학생들조차도 찬양을 하거나, 말씀에 반응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데 친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강사 분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소통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물론, 때로는 이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채플 분위기가 소란스러워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모여 앉아서 심하게 떠들기가 쉽다. 강사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은 친구들과 마음 놓고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라면

조용히 잠을 자기라도 했을 것이다.

이렇듯 좌석제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준비와 스텝들의 수고와 노력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한 이후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학생들이 조금씩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정 좌석 제도’에서 학생들이 저마다 맨 뒷자리를 앉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재빨리 뒷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귀찮게 방해받지 않고 마음 편히 잠을 청하고 싶기 때문이다. 비기독교인 젊은 세대들에게 기독교적 예배와 채플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싫었으면 저렇게까지 행동할까 싶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이 채플이 너무 좋아서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줄을 서게 해주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는 머지않아 응답되었다. 처음에는 뒷자리와 구석자리만을 찾아갔던 학생들이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앞자리를 찾아서 나오기 시작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뒤에서부터 조금씩 앞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원하고 바랬던 대로,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좌석제도를 바꾸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전주대학교

채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 진심 어린 수고와 노력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채플이 진행되는 분위기에 더 큰 활력이 붙게 되었다.

그동안 적막이 흐르던, 혹은 잠을 청하기 바빴던 전주대학교 채플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변화되었다.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그동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독교인 학생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강당 앞쪽에 함께 모여 앉아서 뜨겁게 찬양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채플로 변화될 수 있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앉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매시간 마다 비기독교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채플이 변화되었다.

▶ 수학교육과 서한나 학생

"매번 채플 시간 때마다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앉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자율좌석제도로 바뀐 다음부터는 같은 학과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찬양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먼저 앞자리에 가서 앉자고 말해주어서 너무 기뻐고, 채플 시간 동안 비기독교인 친구들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좌석 제도를 변경하는 데에는, 행정적인 큰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행정직원들이 조금 더 수고하기를 각오하며 학생들의 편의와 마음을 위해주면서 좌석제도를 바꾸었을 때, 채플을 통한 복음전도의 다양한 가능성이

경험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열림으로 인해서 보다 강력한 복음 전도의 시도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었다.

2. 진심을 담은 사과와 존중의 마음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사립대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 채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대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은 채플이라는 교양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장을 얻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의 학생까지도 모두 채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학생들도 이것을 좋아할 수는 없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채플을 귀찮고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하물며 종교가 다른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무관심과 짜증을 넘어서 때로는 기독교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끌려와서 배배 꼬인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채플 강단에 강사들이 서서 마주해야 하는 학생들의 마음과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누었던 진심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미안한 마음>. 채플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시간을 매주 1시간씩 뺏어야 하기 때문이다. 들어오기 싫어도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야 하니,

역지로 채플에 들어와서 앉아있어야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정말로 많이 미안했다. 게다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보여준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인해서 기독교 자체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갖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했다.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해준 것도 너무 미안한데, 그것도 모자라 강제로 이 자리에 앉혀 놓고 역지로 설교를 듣게 하니,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을 향한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고개를 숙여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 교회가 보여주었던 실수와 실망스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서 허리를 굽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학생들은 이런 나의 진심 앞에서 진지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매 학기를 시작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빼앗은) 이 시간을 유익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나누었다.

진심을 전하는 나에게 학생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마음을 활짝 열어 주었다. 따로 부탁한 적도 없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박수로 화답해줄 때가 많았다. 학생들의 이 박수는 특정한 사람을 향한 칭찬의 의미가 아니다. 사랑과 진심이 학생들에게 경험되었다는 의미이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할 준비가 되었다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다.

또한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굳게 닫혀 있던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현상이며,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던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존중과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경험한 학생들은 마음을 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사탕 하나를 통해 경험하는 복음

힘들고 지친 젊은 세대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이를 위해서 매 시간 채플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고 싶은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임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쥐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을 나눠주고 싶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학생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바로 작은 막대사탕 하나였다. 첫 번째 채플에서 학생들과 만남을 시작했던 날은 3월이었다. 젊은 세대들에게 3월 14은 특별한 날이다. 바로 ‘화이트 데이’로 불리는 날이다. 연인끼리 사탕을 주고 받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학생들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채플에 참석하는 2,00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막대사탕을 준비했다. 대형마트에 찾아가서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 사탕 2,000개를 구입해온 것이다. 그리고 채플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사탕을 전부 나누어 주었다.

학생들은 너무나 좋아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다시 한 번 경험했다. 사탕 한 개의 가격은 200원에 불과하지만, 전체 학생을 위해 직접 사탕을 준비해서 나눠주었던 진심 어린 마음의 가격은 200원에 불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채플에 참석했던 한 여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자신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채플에 관심도 없어서 그냥 구석자리에 앉아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화이트 데이 사탕을 모두에게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선물 받은 사탕을 입에 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도중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날 내가 전했다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8장 -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림7> 사탕을 들고 마음을 전하는 모습



그렇게 잠자던 학생이 사탕 하나 때문에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반응하는 감동적인 경험을 한 것이다. 이 사탕은 그저 단순한 사탕이 아니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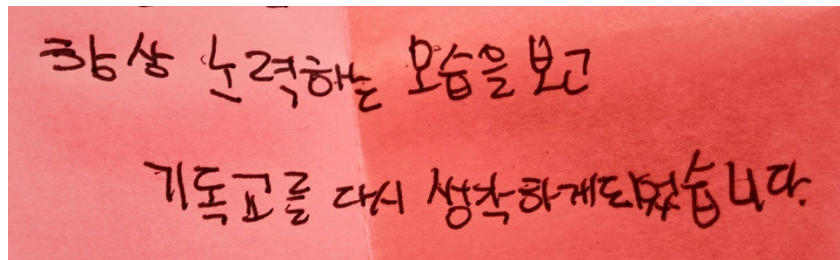
그 이후로 매주 채플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값비싼 선물이 아닌, 보통 100~200원 정도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선물 하나가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 주었다. 그렇게 열린 마음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주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 하나의 위력은 대단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정성을 담은 진심이라는 것이다. 그저 초콜릿 하나, 막대 사탕 하나가 학생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 아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선물하는 막대 사탕이었기에, 이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경험하는 자리로 안내하는 훌륭한 초대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기독교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경험

채플에 참여했던 어느 비기독교인 학생이 이런 쪽지를 남겨주었다.

<그림8> 비기독교인 학생의 쪽지



“기독교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기존에 기독교에 대한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플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오게 하는 방법은, 젊은 세대들이 참된 교회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몸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하면,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교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다.

5.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색다른 경험 : 수면 좌석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고리타분한

모습만을 강요하는 교회의 보수적인 모습이다. 2020년대 이후, ‘꼰대 문화’ 라는 단어가 급속도로 한국 사회 안에 퍼져 나갔고,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정해진 틀을 강요하는 기성 세대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했다. 젊은 세대들이 다시 매력을 느끼고 찾아오게 하는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색다를 경험을 선물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험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채플 시간에 학생들을 위한 수면 좌석을 만들었다. 강당 맨 뒤쪽에 있는 좌석들 위에 담요와 목 베게, 그리고 안대까지 준비해 놓고, 잠을 자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재워주고자 한 것이다. 단, 수면 좌석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 수면 좌석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공감해주기 위한 노력이었다. 누군가는 이것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학생들의 굳게 닫힌 마음 가운데에는 그 어떤 훌륭한 설교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않는다. 자려는 학생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잠을 잘 것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오히려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경험을 선물해주는 것이다. “재워 줄게!”

수면 좌석은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디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수면좌석은 학생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선물한다. “여러분, 채플을 준비하는 우리가 여러분을

정말 배려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진심이 느껴 지십니까?”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다.

수면좌석은 학생들을 향한 진심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새롭고 흥미로운 대화의 수단이었으며,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

<그림9> 전주대학교 채플에 준비된 ‘수면 좌석’



C. P - 참여하는 기쁨

1. 3분 스피치

전주대학교에서는 채플시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강단 위로 올라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서로 말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희망하는 누구나 손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와서 ‘3분’ 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자신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자리다.

채플이라는 시간은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강 인원이 참여하는 시간이다. 전주대학교 채플에는 한 공간에 400~8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다. 보통의 대학생들이 입학해서 4학년으로 졸업하기 전까지 수백 명 앞에서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은 하기 힘들다.

이 자리는 사실 굉장히 어색한 자리이다.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 그리고 ‘채플’이라는 딱딱한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손을 들고 스스로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점점 이 시간을 누리고, 즐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서로 쭈뼛쭈뼛 어색해 하지만, 누군가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서로 손을 들고 나와서 저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 무슨 이야기라도 괜찮다고 했다. 채플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좋고, 자신이 받은 감동도 좋고, 혹은 사랑 고백이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다고 했다. 어떤 주제라도 좋으니 참여하는 기쁨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나누며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고, 좋아하는 여자 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학생도 있었다. 때로는 기독교인 학생들이 직접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올라와서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변화되어 가는 마음의 상태를 나누기도 했다. 혹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 어떤 학생은 오늘이 생일이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받아보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3분 스피치’ 라는 시간은 그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채플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 어떤 강사들의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학생들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며 관심을 가졌다.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채플의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하고 활력 있게 변해갈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 이런 채플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증거다.

2. 부모님과 함께하는 감동

대한민국 영화들을 살펴보면, 흥행작들 중에 '가족'이라는 코드를 사용한 영화들이 많다. 그만큼 '가족'이라는 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훌륭한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젊은 세대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정일지라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가정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전주대학교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온다. 학교가 위치한 전라도를 포함하여,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에서도 입학한 학생들이 있다.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집을 떠나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집에 있는 부모님들과 연락을 했다. 고향을 떠나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모님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며, 부모님들께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를 부탁드렸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음성편지를 녹음하고, 부모님들의 사진이나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전송 받아서 짧은 영상 편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제작한 이 영상을 채플 시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자리에 앉아 있던 학생들 중에 자신의 부모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학생들도 있었고, 비록 자신들의 부모님이 아닐지라도 친구들의 부모님이 보내주신 영상편지를 보면서 각자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많았다.

이 날 채플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었던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사랑,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신들의 이름이 존재하지만,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자녀’ 라고 불러 주시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아낌없이 내어주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부모님들의 참여를 통해

수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때로는 그 반대로 학생들이 부모님을 학교로 초대해서, 이벤트를 진행했던 순간도 있었다.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부모님을 초대한 뒤, 채플 시간을 통해 부모님을 향한 영상편지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과 직접 준비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감동이 가득했다.

3. 만원의 행복 이벤트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나눔’이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누며 살자고 아무리 강의 해도, 실제로 도전을 받아 그것을 실천하며 나눔의 기쁨을 누리볼 수 사람은 많지 않다. 주는 것의 기쁨이 받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 사실을 몰라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남을 위해서는 자기 돈 만 원 한 장도 그냥 베풀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 없이’ 그저 베풀고 나누다는 것은 분명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나눔의 행복을 함께 경험하며, 그 기쁨의 자리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름의 이벤트였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돈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라고 하면,

아까워서 고민하다가 시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나눔을 실천해볼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채플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현금 1만원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벤트를 진행할 때,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을 세웠다. 첫째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둘째는 거룩한 충격이었다. 학생들이 앉게 되는 강당 의자 안쪽에 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50장을 무작위로 붙여 놓았다. 그리고 강의를 마칠 때쯤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좌석 팔걸이를 모두 열어보라고 말했다. 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한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환호성을 질렀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만 원 짜리를 전부 다 나눠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만원의 봉투를 얻게 된 50명의 학생들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은 만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용하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좋은 곳에 사용해보고, 느낀 점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다른 학생들 과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주를 기대합니다.”

비록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던 것은 아니지만, 기회를 얻어 나눔을 직접 실천해보았던 학생들이 먼저 느끼고 배운 감동과 기쁨을 채플에 들어오는 또 다른 2,000여명의 학생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대했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지갑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비록 봉투를 받지 못한, 자신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후원하고 싶다면 현금 1만원을 들고 찾아온 것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빈 봉투를 건네며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것을 부탁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수많은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함께 ‘거룩한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있던 기독교 학생들 역시 ‘새로운 도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경험했다.

이벤트가 진행되었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보내오는 메일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만원을 사용했던 후기들을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았다. '와..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곳에도 사용할 수가 있구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감동들이 있었다.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후기들을 채플시간에 읽어주고 나눠주면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기쁨이 흘러갔다.²⁶

<그림10> 만원의 행복 이벤트



²⁶ 참여 학생들이 보내온 후기 (부록)

4. 비기독교인 소그룹 성경공부 진행

채플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학생들이 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인식들이 점차 바뀌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소그룹 성경공부 신청을 받았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모였다.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위한 성경공부의 이름은 <프로포즈, Propose> 였다. 성경에 대해서, 인간과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채플에서는 미처 다루기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경공부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학기가 끝날 때에는 채플 시간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식을 진행하였다. 지금도 전주대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세례를 받고 있다.

<그림11> 2014년 채플시간을 통해 세례를 받고 있는 학생들



5. 전주대학생 100명과 함께 찾아간 논산 훈련소

어느 날 논산 육군훈련소 내에 있는 연무대교회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연무대교회에서 진행되는 훈련병들을 위한 예배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하신 것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흔쾌히 논산 훈련소에 방문하였고, 젊은 세대 청년들을 위한 사역의 마음들과 EPIC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를 마칠 때쯤 목사님께서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와서 군인 장병들을 위한 특별예배를 진행해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하셨다. 육군 논산훈련소 내에 위치한 연무대교회에는 매주 약 5,000여명의 훈련병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5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그동안의 습관들을 고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훈련이 많을 수밖에 없다. 부모님과 친구들을 떠나 훈련소에 입소하여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며 지쳐 있는 훈련병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전주대학교 채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비전을 나누었고, 학생들이 함께 찾아가서 훈련병들을 위로하며 예배하기로 결정했다. 특별히 논산 훈련소 훈련병들과 함께 진행할 이벤트를 위해서 학생들은 채플시간을 통해 수천 장의 종이비행기를 함께 접어주었다. 그렇게 자원한 100여명의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다.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적인 순서들을 제공하며 훈련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지쳐 있는 훈련병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동과 위로를 선물해 줄 수 있었다. 특히 이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의 훈련병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평소 말로만 듣던 훈련소에 직접 와서, 훈련병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보니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친구들이 더욱 고맙게 느껴졌고,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며 마음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평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시선들이 달라졌고, 예배에 대한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당시 연무대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이호상 목사는,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훈련병들의 사기가 더욱 높아졌고, 무엇보다 지치고 외롭고 힘들었던 훈련병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전주대학교와 학생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을 표현했다.

채플을 통해 모이게 되었던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삶으로 함께 실천해보는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12> 전주대학생들이 참여한 논산훈련소 예배



D. I - 풍성한 이미지로 전달되는 복음

1.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선물들

채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학생들은 그저 귀로만 예수님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다양한 선물들을 받으며 복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전주대학교 채플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던 선물들은 다음과 같다. 책갈피,츄파춥스 사탕, 미니셸 초콜릿, 추억의 불량식품, 초코파이, 비타민, 엽서카드, 장미꽃, 화분, 볼펜, 기름종이(화장품), 팔찌, 목걸이, 종이비누, 전자파 차단 스티커, 반창고 등.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담아서 특별히 제작된 선물들도 있었고, 기존의 제품들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기간을 앞두고 진행되었던 채플에서는 응원과 격려의 문구가 새겨진 예쁜 볼펜을 6,000자루 제작해서 채플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선물해 주었다. 학생들은 그 볼펜으로 시험공부를 하거나, 시험지를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어느 과목 시험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선물 받은 볼펜으로 시험을 보았다는 후기가 있었다. 손에 쥘 때마다 보게 되는 복음의 문구, 응원의 문구와 이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13> 다양한 이미지로 전달되었던 복음의 선물들



2. 찾아오고 싶은 공간 만들기

찾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풍성한 이미지로 가득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대하는 만큼 누리고, 기대하는 만큼 얻고, 기대하는 만큼 만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학에서 채플이라는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학생은 존재하기 어렵다. 또한 채플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사람들도 기대하면서 채플을 준비하기 어렵다.

전주대학교 채플에는 학생들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포스터, LED촛불, 풍선 등의 장치로 입구를 꾸며 놓았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정성이 담긴 여러 선물을 나눠주었다. 새 학기를 시작할 때에는 전체 커리큘럼을 멋진 이미지와 함께 책갈피로 만들어서 나눠주었다. 이것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도와 기대감을 높여 주었다.

<그림14> LED와 플래시를 사용해 아름답게 연출된 채플 공간



상황에 음악과 조명, 그리고 방향제를 뿌려 놓음으로써 학생들이 입장하는 공간에서 입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세팅하였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마침내 채플에 학생들은 연실 ‘우와~’ 탄성을 자아내며 한껏 들뜬 마음으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기대와 설렘으로 활짝 열린 학생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행복한 일이었다.

E. C - 친구가 되어 주기

1. 관계의 형성

교회에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찬양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어느 날 기타를 연주하며 찬양을 한 곡 불러 주었는데, 학생들이 뜨겁게 박수를 쳐주며 좋아했다. 찬양이 좋은 게 아니었다. 나를 향한 학생들의 호감이, 그들의 열렬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형성’ 이 가져오는 힘이다. 좋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좋게 여겨지고, 싫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싫은 법이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서 학생들은 채플에 들어오는 것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관계에 대한 호감이 채플에 대한 호감으로, 채플에 대한 호감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으로 서서히 변해간 것이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서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관계의 형성’이라는 주제에 많은 관심과 힘을 쏟아야 한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큼, 세상과 소통하며 젊은 세대와 대화하는 법 또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Facebook)에는 ‘친구 추가’라는 기능이 있다. 친구가 되어야 볼 수 있는 글이 있다. 친구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글을 포스팅 했을지라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젊은 세대가 교회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

<그림15> 비기독교인 학생이 권복음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

문자 메시지
오늘 오전 9:52

안녕하세요!예수치료
안녕하세요! 예수치료학과 [redacted]
[redacted]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ㅎㅎ {안녕하세요 GOD! 여기 당신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복음 교수님께서서 좋을일을 하실 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잘 극복하실수 있게 도와주세요.}

2.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는 일반적인 교회건물이 아니었다. 때로는 홍대 클럽, 때로는 종로 영화관, 때로는 대학로의 소극장이기도 했다. 그런 공간들을 예배의 장소로 세팅하기 위해서는 힘들게 고생하며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했다. 매주 그렇게 헌신하며 고생하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동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역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 주일마다 새벽부터 줄린 눈을 비비면서 모여드는 청년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맡아서 몇 시간을 힘겹게 수고해야 비로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팅이 되었다. 이런 수고와 헌신은 누가 강제로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순전히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들이 모였을 때만 가능했던 일이었다. 함께하는 것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젊은 세대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을 강제로 잡아당겨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잠시 잠깐은 잡아 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다 뿌리치고 떠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들이 먼저 제 발로 찾아오게 된다. 다음은 실제로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채플에 대하여 고백한 대답들이다.

“매주 채플이 기다려져요”
 “오늘 수업 다 휴강 되었는데, 채플 듣고 싶어서 그냥 학교 나왔어요”
 “저는 채플 수강생은 아닌데, 혹시 청강을 해도 괜찮을까요?”
 “오전에 채플 한 번 들었는데, 오후에 또 들어도 되나요?”

이것은 채플이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먼저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리고 손뼉아 기다려지는 채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었다. 학생들이 채플에 들어와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니, 강사들에 대한 반응도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학생들의 리액션이 좋아지니, 강단이나 무대에 서 있는 강사들에게서 더 좋은 것들이 흘러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또 좋은 것을 얻게 되고, 그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것이 바로 ‘오고 싶은 공동체’,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에 일어나는 선순환의 모습이다.

<그림16>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안아주는 채플의 모습



3. 강사가 아닌 목자의 마음으로

2011년도 2월,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 소속 객원교수라는 신분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교에 오면서 제 안에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학생들의 목자가 되어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단순히 채플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돌아가는 강사의 역할로 끝나버리지 않고, 채플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각오가 있었다.

채플사역을 시작한 첫 해, 저는 2000여명의 학생들을 맡게 되었다.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당연히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았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비율은 약 3:7 정도로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월등히 많았다. 나는 이 학생들 모두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싶었다. 채플에 들어오는 학생이라면,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고 싶었다.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힘들어 질 때마다 언제라도 기도를 부탁하고 위로를 얻어 갈 수 있기를 소원했다

학생들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학생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해주는 것이었다. 학교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2,000명이 넘는 채플 수강 학생들의 명단을 모두 뽑았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만 정리해서 문서로 출력한 뒤, 이것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학생들의 명단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서울과 전주를 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도 이 명단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 매주 화요일에 채플 강의가 진행되는 전날 밤이면, 강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는 꼭 이 명단을 펴 놓고 학생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함으로써 마무리 했다.

사실 학생들의 명단을 보며 기도 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수천 명의 학생들과 전부 친해질 수도 없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분량과 깊이에도 분명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다. 일일이 학생들의 얼굴을 다 알아볼 수 없고, 또 그들의 속 깊은 사정들을 다 알아 줄 수 없을지라도, 학생들의 명단을 보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믿었다.

채플 강단에 그저 강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두는 목회자로 서길 소원했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전주대학교 채플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채플 분위기가 크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위한 기도의 힘이 가장 크고 중요했다고 믿는다.

강사가 아닌 학생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을 먹이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양들을 먹이는 것이 목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명이다. 학생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양식’ 뿐 아니라, 그들의 손에 쥐어 줄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삶의 양식’ 까지 함께 먹이는 목자가 되고 싶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매주 채플 시간을 통해 만나게 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물을 준비해서 매주 나눠 주기 시작했다. 이 선물들로 인해서 채플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 비록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정성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던 것이다. 전주대학교 채플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의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었고, 작은 선물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물할 수 있었다.

친구가 되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게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가 과연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

제 V 장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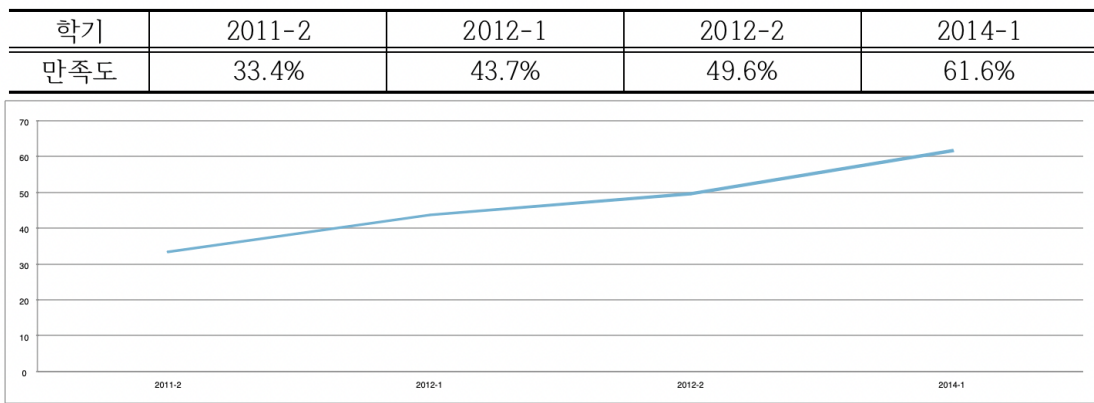
요약과 평가

젊은 세대를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주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이 먼저 찾아 오게 하는 교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을 전주대학교 채플과 목회현장에 적용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교회가 젊은 세대들을 품고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전주대학교 채플은 2011년부터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을 시작했고,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며 채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으며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 연결되었다. 다음 자료는 매 학기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채플에 대한 만족도 그래프이다.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와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참여 등의 변화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된다. ‘만족도’ 라는 수치 이면에 미처 다 표현되지 못한 복음 전도의 잠재적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채플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될

이유가 있다. 이것은 얼마큼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본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변해가는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17> 채플에 대한 학생 만족도 변화추이 그래프 (2011~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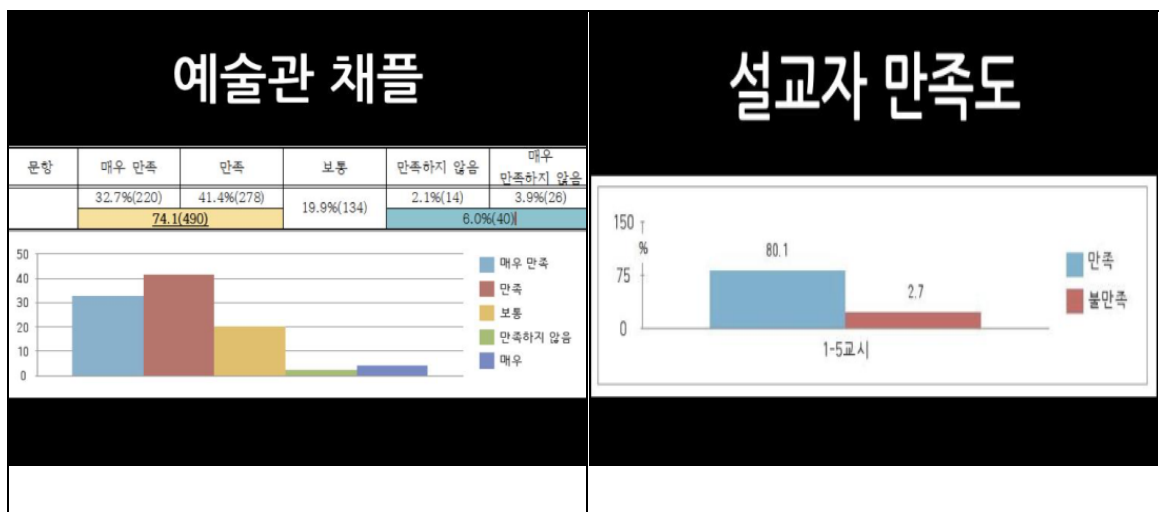


EPIC 목회를 기반으로 사역을 시작한 2011년도 이후로 전주대학교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히 채플에 대한 만족도와 설교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80%의 이상의 학생들이 만족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결과는 이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채플의 모습이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절반이 넘는 숫자인 65% 가량이 종교가 다른 비기독교인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주대학교 채플 시간을 통해 매년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았다. 굳어져 있던 학생들의 마음이 변하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변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림18> 2012년 전주대학교 설문조사, 채플만족도 결과



제언과 결론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학생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오는 대학 채플을 상상하며 시작했던 전주대학교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4000여명의 비기독교인 젊은 세대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예배당 안으로 달려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행복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경험하고, 참여하며, 관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기독교인들이 반응하며 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한국교회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림 19> 채플 앞자리에 앉기 위해 달려오는 학생들의 대화

	최초롬 ㅎㅎㅎㅎ 좋다좋다*.* 3월 25일 오후 10:49 · 좋아요
	김주송 앞자리맨날팍차있어여..ㅏㅏ 3월 25일 오후 11:22 · 좋아요
	곽하늘 김주송하향난 맨날 맨앞자리를 사수하지!ㅋ ㅋ 권복음그쵸 전도사님?! ㅋ ㅋ ㅋ 3월 25일 오후 11:30 · 좋아요
	김주송 ㅋ ㅋ ㅋ ㅋ 나도암혼노력해바야게성ㅋ 3월 25일 오후 11:36 · 좋아요
	곽하늘 김주송앞자리에 앉으려면 적어도 30분 전부 터 줄을 서야함!!!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3월 25일 오후 11:37 · 좋아요
	김주송 흐르르.. 3월 25일 오후 11:45 · 좋아요
	이은하 저도 전도사님 채플 들고싶어요 ㅠㅏ 3월 25일 오후 11:49 · 좋아요 · ♡ 1
	곽하늘 김주송앞자리에 앉으려는자 스피드를 높여 라!! 막오래 ㅋ ㅋ ㅋ ㅋ 3월 25일 오후 11:53 · 좋아요
	김주송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걸지말고뛰어 라 3월 25일 오후 11:58 · 좋아요
	김주송 현님맨찍어야되?

젊은 세대들이 먼저 찾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필자가 전주대학교에서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을 5년 동안 만나면서 이들의 마음을

얻고, 친구가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먼저 찾아올 수 있게

하였던 10가지 핵심 주제들을 제언한다. 알파벳 C로 시작하는 10가지 주제이기에, ‘10C (Ten C) 전략’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 1) Christ :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 2) Cherish :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마음
- 3) Contemporary : 현대적인 감각
- 4) Culture : 문화적인 접근
- 5) Convince : 지성으로의 대화
- 6) Creativity : 창조적 관점
- 7) Community : 공동체 형성
- 8) Cultivation : 기독교적 가치관의 함양
- 9) Collaboration : 유기적인 연합사역
- 10) Celebration :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한 가지 방향으로 압축된다. 그것은 “오고 싶은 공동체” 가 되는 것이다. EPIC 목회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진정성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억지로 붙잡지 않을지라도 젊은 세대들이 먼저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젊은 세대들의 아름다운 부흥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한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김도일. 『교육인가 신앙공동체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김도일, 『미래시대.미래세대.미래교육』. 서울: 기독교, 2013.
- 김영래. 『김영래 교수의 미래.교육.목회』. 서울: 통독원, 2017.
-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5.
- 김운용.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10.
- 박상진. 『기독교교육과정 탐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2. 번역 서적

- Sweet, Leonard. A Is For Abductive : the language of the emerging church. 김영래 역.
『미래교회 성공키워드 A to Z』.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7.
- _____. Aqua Church. 김영래 역.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서울:
좋은 씨앗, 2004.
- _____. From Tablet To Table. 장택수 역.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서울: 예수전
도단, 2015.
- _____. The Hardest Words. 윤종석 역. 『가장 고귀한 세 단어 I Love You』. 서울:
IVP, 2009.
- _____. Jesus Drives Me Crazy. 윤종석 역. 『나를 미치게 하는 예
수』. 서울: IVP, 2004.
- _____. Learn to Dance the Soul Salsa. 『세상을 호흡하며 춤추는
영성』. 서울: 좋은 씨앗, 2004.
- _____. Nudge Leonard Sweet. 유정희 역. 『넛지 전도』. 서울: 두란노, 2014.

_____. Post-modern Pilgrims.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 씨앗, 2002.

_____. Summoned to Lead. 강봉재 역. 『귀없는 리더 귀있는 리더』. 서울: IVP, 2005.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rks. 이지혜 역.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_____. What Matters Most. 윤종석 역. 『관계의 영성』. 서울: IVP, 2019.

3. 논문

신정원.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이론과 포스트모던 기독교 청소년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유선하. “현대 예배의 문화적 활용방안 연구 : 레너드 스위트의 EPIC이론 예배적용을 중심으로”. 천안: 백석대학교 백석대학원, 2022

임정수.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교육 - 레너드 스위트의 EPIC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

천정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교회 문화에 대한 연구 :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9.

부록1. 2014년 1학기 전주대학교 채플 설문조사 결과

2014-1 채플설문조사 결과

2014.07.30.

1.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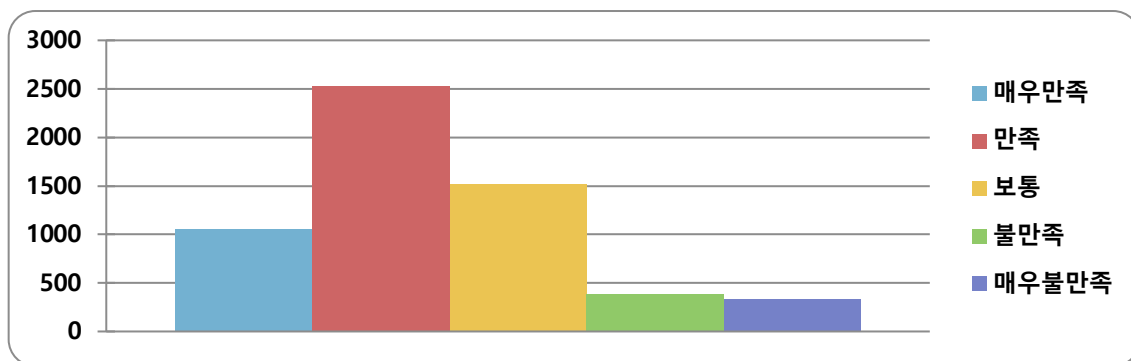
채플전체수강인원	응답자인원(%)
5913	5812(98%)

2. 종교현황

개신교	비개신교(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무교, 기타)
1973(33.9%)	3839(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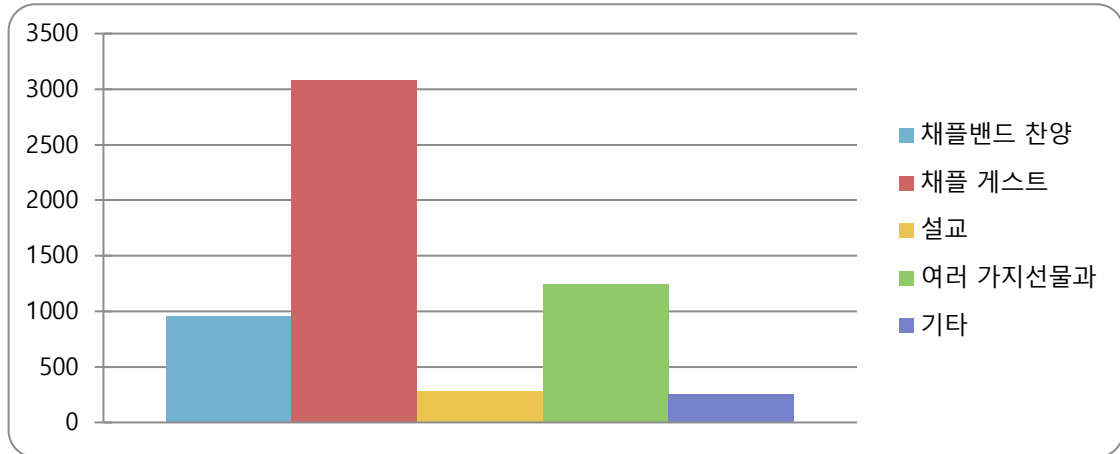
3.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054(18.1%)	2527(43.5%)	1523(26.2%)	379(6.5%)	32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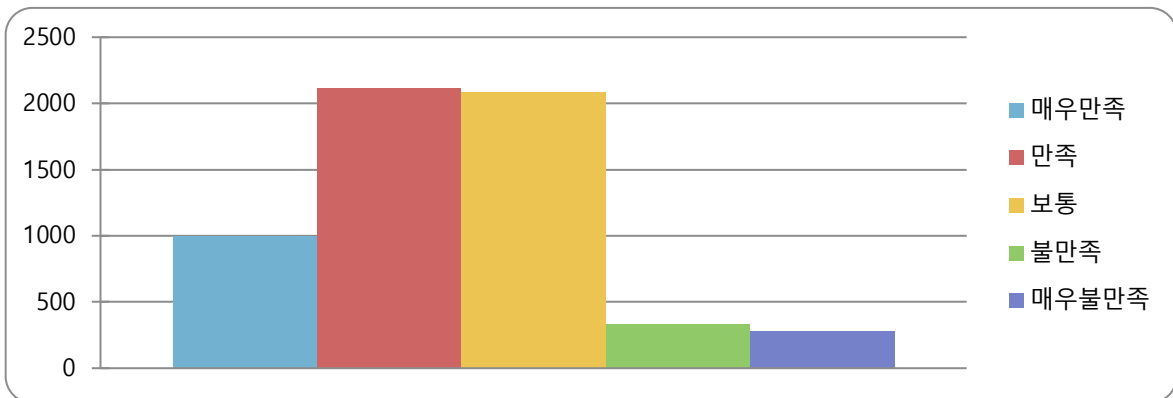
4. 좋았던 프로그램

채플밴드 찬양	채플 게스트 (다양한문화공연)	설교	여러 가지선물과 이벤트	기타
957(16.5%)	3078(53%)	277(4.8%)	1243(21.4%)	25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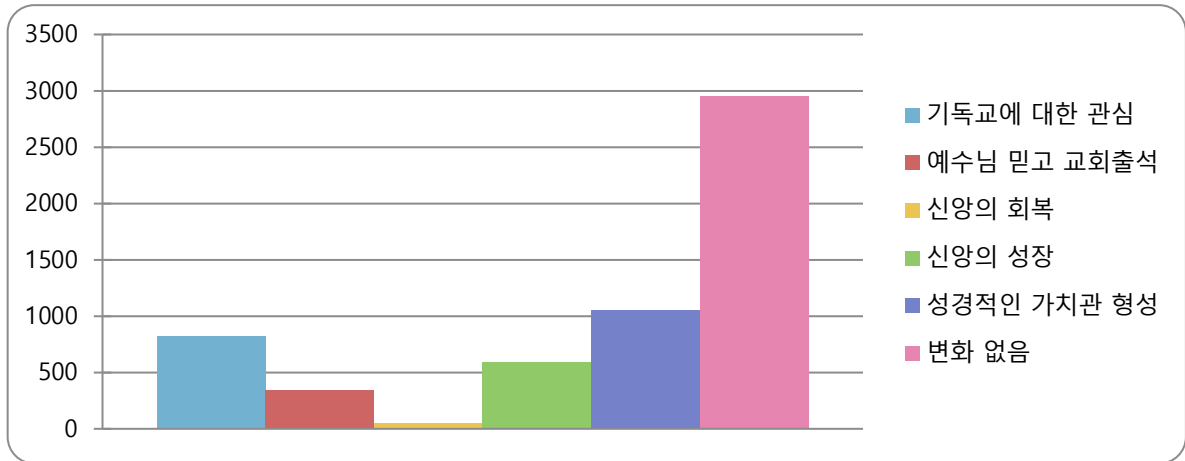
5. 설교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002(17.2%)	2117(36.4%)	2083(35.8%)	329(5.7%)	281(4.8%)



6. 채플 통한 변화

기독교에 대한 관심	예수님 믿고 교회출석	신앙의 회복	신앙의 성장	성경적인 가치관 형성	변화 없음
822(14.1%)	347(6%)	52(0.9%)	591(10.2%)	1055(18.2%)	2945(50.7%)



부록 2. 만원의 행복 이벤트 참여후기



■ 이○○ 1학년

저는 4시 30분 채플 듣는 전주대학교 이○○입니다. 이번 만원의 행복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학과 재학중인 김○○와 함께 돈을 모아서 같이 섬기고 있는 개척교회 화장실 청소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전주에서 다니고 있는 교회는 상가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입니다. 시장들과 다른 상가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인데 매주 위생적이지 않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정을 마치고, 함께 롯데마트로 달려가서 청소도구와 세제 등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금액이 남아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점심 식사 후에 먹을 수 있는 사탕과 초콜릿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교회 예배가 마치고 저와 친구는 옷을 갈아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와 세면대 바닥 벽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더러운 물도 튀고 소리도 질러가며 하였지만 청소를 하면서 이번 한 번만 해서는 안되겠다 ... 라는 생각을 친구님이 하더라구요. 이번 만원의 행복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청소를 하였지만 이 작은 섬김의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었고 남을 위해 섬길 때 나눌 때의 기쁨을 다시 경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3. 전주대학교 채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학생들의 간증문

1. 전주대학교 최소라 학생

처음 전주대에 오게 된 것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온 것이었지만 지금은 전주대학교에 온 것에 애정을 갖게 되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대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전주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만 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썼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해서 온 곳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원광대보다 전주대에 온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전주대학교에 오게 되니 싫든 좋든 채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플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와 소중한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셨던 것일까? 나를 반드시 전주대로 오게 하려고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전주대학교에 있다는 것이 싫었는데, 지금은 제 모든 상황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모든 상황이 그저 좋았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주대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고 싶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도 또 다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해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 욕심만 채우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올바르게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 전주대학교 조혜정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학생 조혜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주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음악, 관소리를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다가, 2년이 흐른 뒤 비전을 품고 욕심을 내어 전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입학한 대학에서 새로운 만남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플이었습니다.

아직도 처음 채플 강당에 들어섰던 그때의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채플을 위해서 봉사하는 스텝 학생들을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란 분을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헌신하고 마음을 내어 놓고, 게다가 채플에 참석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저 하나만 챙기기에다 벅찰 정도로 좁았고, 가족들을 향해 항상 차가운 시선만 보내던 사람이었던 지라 기도하는 자리에 서있는 학생들을 보니 내 자신이 아주 작게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가난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전주대학교 안에 있는 대교회 건물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교회당 맨 뒷좌석에 앉자마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그렇게 몇 시간을 꾸역꾸역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다고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 시간 마음속에 가득 찼던 위로와 벅찬 감동으로 인해서 채플 찬양팀에 들어가고 싶다고 다짐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곧 바로 채플 찬양팀에 지원하게 되었고, 함께 예배하고 채플을 섬기면서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여전히 가정형편과 상황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일들도 주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도 주님의 이끄심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힘든 일이 많다면, 이것 또한 나를 훈련시키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톱니바퀴가 큰 톱니바퀴를 돌아가게 하듯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나중에 있을 큰일들을 위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길이 없는 산을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도 지금도 우리 앞에서 나뭇가지들을 다 치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쳐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청춘 파이팅!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Bokeum Kwon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November 9, 1983

Parent`s Names: Kooyoung Kwon / Hanna S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Joongdong High School 7, Irwo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0, 2002
Collegi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Feb 10, 2008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10, 2011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Bokeum Kwon

Name typed

March 15, 2023

Date